

대중가요를 이용한 <일본현대시> 수업의 전략

남이숙*

(e-mail : ysnam@kunsan.ac.kr)

目 次

- I. 들어가며
 - II. 대중가요는 하위 장르인가?
 - III. 교재화의 전략
 - IV. 수업의 실제
 - V. 나오며
-
-

I. 들어가며

요즘 인문학 분야에서 대중문화 읽기가 활발하다. 많은 이들이 게임, 인터넷, 영화, 대중가요, 다큐멘터리 등 대중매체에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몇 발짝만 벗어나면 텔레비전을 본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가요를 부른다던가 하는 행위는 극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위이다.

가요는 이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젊은이들 귀에 꽂힌 엠피쓰리 플레이어에서도, 휴대폰에서도, 다방에서도, 자동차 안의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가요의 힘은 때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즐기는 학생들의 현상을 사회병리와 결부시키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왜냐하면 대중가요는 21세기 문화의 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잘 살펴보면 대중가요 속에는 현대인의 욕망과 사고방식, 정체성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가요는 일개

* 군산대일어일문학과

가요로서 뿐만 아니라 시적 텍스트로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최근 발표자는 대학 3학년 학생들에게 「일본현대시 이해」를 가르치고 있다. 현대시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고충 중의 하나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시가 많다는 점이다. 좋은 시라고 평가되는 시들은 대부분 응축되고 비틀리고 압축된 고도로 추상화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를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칫 학생들은 흥미를 잃고 수업을 꺼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금 다른 방식, 즉 평이한 용어로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대중가요를 부교재로 도입하면 숨통이 트이며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대중가요는 노래하면서 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다. 실제로 일어를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는 X-Japan이, Smap가 좋아 일본어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

따라서 이번 논고에서는 대중가요가 과연 현대시 수업에 적용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가요를 선별하여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대중가요는 음악의 하위 장르인가?

장정일의 시에 다음과 같은 ‘꽃의 패러디’란 제목의 시가 있다.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빗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켈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누군가가 보고 싶을 때 단추만 누르면 그 사람이 되살아나 내게 다가오는, 그리고 싫을 때 단추만 끄면 사라지는 라디오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다. 편리한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의 문화를 단적으로 잘 표현한 시라 생각되는데, 현대는 정말 단추

누르는 정도의 노력만 기울이면 곳곳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접할 수 있다.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잡지, 만화, 전자오락, 인터넷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대중문화를 놓고 우리 주변과 사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문화의 속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다.

영어 표기를 보면 대중문화가 가진 양면성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대중문화는 영어로는 mass culture와 popular culture 양쪽으로 번역되는데, 이 두 단어에는 큰 차이가 있다.

mass culture는 한 집단의 성원이나 개인을 개의치 않는 무차별적인 집합체를 의미한다. 매스 컬처에는 상업주의, 획일성, 저속성 등의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반면 popular 라는 단어에는 ‘인기가 있다’라던가 ‘민주적이다’라는 본래의 의미 때문인지 ‘일반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동의되고 있는’으로 정의되는 긍정적 의미도 담겨져 있다.¹⁾

대중가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중가요란 말 그대로 널리 대중들이 즐기는 노래이다. 다시 말하면 대중들이 가장 친숙하게 접할 수 노래이며, 가장 강력한 타자인 클래식 음악처럼 고풍스럽거나 이해하는데 전혀 까다로운 음악이 아니다. 그런 때문인지 가요 앞에는 ‘통속적인’이라는 말이 으레 붙는다. 이 말은 ‘광범위한 대중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개 감성의 과잉노출, 상투적인 패턴 등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리처드 미들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대중음악을 정의할 때 이용되는 좌표는 대략 네 가지다.²⁾

첫째, 규범적 의미로 하위 장르를 가리킨다.

둘째, 부정적 의미로 예술로서의 음악이 아니며 민속음악 포크도 아닌 것이다.

셋째, 사회학적 의미로는 특수한 사회집단(대중)에 의한, 그리고 이를 위한 것이다.

넷째, 경제적으로는 매스미디어나 음악 산업에 의해 유통되는 음악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의에는 어느 정도 폄하의 의미가 담겨 있다. 세 번째에는 그 대상이나 주체가 다름 아닌 ‘대중’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있고, 네 번째의 정의에는 역사적 맥락이 개입되어, 매스미디어와 음반 산업이라는 유통환경은 근대 이후에나 확정된 개념인 것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정의에 해당하는 ‘대중가요는 과연 하위 장르인가’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멸하는 듯한 풍의 다음노래를 보자.

사랑이 별거더냐 좋아하면 사랑이지
 이래저래 정이 들면 호박꽃도 꽃이랑게
 요모조모 뜯어보면 쓸만한 게 있더라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구요 예~

1) 강준만, 『대중문화의 결과 속』, 인물과 사상사, 1999, 21면 참조.

2) 박애경,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세상, 2000, 16면.

영락없이 촌뜨기 호박꽃이지만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자고 마음먹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체념 속의 지혜로움이 담긴 노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70년대 유행한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라는 노래도 계층상승의 욕망을 담은 솔직한 표현이라고 읽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노래이다.

일찍이 도쿄 중앙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대중가요 가수로 활약하였던 채규엽은 대중가요의 필요성과 그 사회적 존재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³⁾

어떤 사람은 유행 가곡(流行歌曲)이 민중에게 유행되는 것은 민중의 자발적 심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레코드 회사의 상업 술책상의 선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겠으나 가령 예술가요(芸術歌謠)나 오페라(歌劇)을 대대적으로 선전한다고 해서 이것이 일반 대중에게 유행되겠는가 하면 의문이다. 역시 민중은 시대의 심리를 꼭 맞으면서도 평이하게 그려낸 유행가라야 자기네의 음악욕(音樂慾)을 만족시키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유행가곡은 필연적으로 유행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유행 가곡은 필연적으로 유행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유행가곡의 생명이 있으며 사회적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중략)..... 그러나 아무리 단순하고 평이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당시 민중의 희로애락의 정서를 가장 교묘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유행가(민심에 꼭 맞는 유행가)는 불후의 예술이요, 훌륭한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처럼 대중가요는 고도로 정제된 시어가 갖추어야 할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내용에 주목해 보면 평이할지라도 시대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으며 민중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또 다른 곡을 살펴보자. 작곡가로서 시인으로 등단하지 않고 시집을 많이 냈다는 백창우의 작사곡으로 임희숙이 열창한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는 어떠한가.

너를 보내는 들뜬에 마른 바람이 슬프고
네가 돌아선 하늘엔 살빛 낫달이 슬퍼라
오랫동안 잊었던 눈물이 솟고
등이 훔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가거라 사람아 세월을 따라
모두가 걸어가는 쓸쓸한 그 길로

이 노래의 가사는 비록 대중가요이지만 시적인 느낌을 강렬하게 준다. 특히 ‘등이 훔 것 같은 삶의 무게여’라는 부분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삶의 근원적인 고민이나 고통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한계령> 과 같은 시적인 노랫말을 써서 유행시킨 음유시인이라 칭할만한 <하덕

3) 『삼천리』 1933년 3월호에 실린 논문으로 장유정 지음, 『오빠는 풍각쟁이야』 민음 in, 2006, 187~188면에서 인용

규>가 지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시나무>는 어떠한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쉼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쉼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매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고 울어대고
쉼 곳을 찾아 지쳐날아요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찢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쉼 곳이 없네

누구나 자기 자신 속에 수많은 갈등과 생각을 갖고 산다. 그 생각이 투영된 노래이다. 매일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수많은 갈등을 겪으며 살아간다. 어쩌면 사는 날 끝까지 그런 상황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가시나무>는 오랫동안 자신을 들여다 본 결과 탄생한 노랫말이라 생각된다.

또한, 대중음악의 역사와 미학을 연구한 페테르 비케(P.Wicke)는 록 음악이 매우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열린 장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귀족과 부르주아에게 음악은 명상의 대상이었지만, 록 음악의 팬들은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 개입자이다. 록 음악 주위에는 팬들의 지원을 받아 음악인·제작자·대중 사이에 상호 작용체계가 생겨난다. 대중은 록 음악을 단순히 수용하고 소비하는 도구로 능하지 않고 이 음악 안에서 즐거움·느낌·의미·가치 등을 생산하고 창조함으로써 거꾸로 제작자와 음악인에게 영향을 준다.⁴⁾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대중음악의 장르에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대중가요는 결코 저급하지 않다. 언뜻 단순하고 평이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그 당시 민중의 회로애락의 정서를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팬들이 적극 개입해 음악 안에서 즐거움·느낌·의미·가치 등을 생산하고 창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급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대중가요는 현재 우리 대중의 삶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는데 훌륭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무도

4) 김성환 엮고 대진대 철학과 학생들과 함께 지음, 『대중음악 속의 철학』,天池, 2001, 14면.

하가, 「정읍사」, 「가시리」를 위시한 아름다운 고려가요. 수많은 시조…… 우리는 이들을 시가(詩歌)라고 부른다. 당시에는 이러한 작품들 역시 모두 대중가요로 애창되었을 것이다. 주옥같은 아리아들이 가득한 모차르트의 오페라가 당시는 일반대중들의 구미와 시각에 맞춘 대중적인 작품이라 하지 않던가. 지금 우리 학생들과 우리들이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들은 이처럼 모두 얼마든지 미래의 문학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Ⅲ. 대중가요 선정과 교재화의 전략

이러한 대중가요를 텍스트로 했을 때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멜로디와 함께 몇 번이고 되풀이해 들어도 지루하지 않다.

셋째, 짧은 문장이어서 의미 파악이 쉽고 듣기도 쉬우며 깊이 있는 가사를 고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의도하는 바에 따라 노래를 고를 수도 있다.

넷째,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사고에 유리되지 않는 실재성을 띤 가사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불만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으며 생동감 있는 시적 언어를 대할 수도 있다.

다섯째, 미리 계획되고 의도된 텍스트로 교육적 가치나 장치가 마련된 텍스트의 경우 가치관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은 대중가요가 좋은가?

먼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퇴폐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은 내용이어야 한다. 대중가요는 대상이 가치관 정립에 한창 힘써야 할 학생들인 만큼 가요의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믿고 따르게 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학습자에게 인간의 삶이나 그것과 관계된 사건이나 세계를 깊이 이해하게 하고 숨겨진 장점이나 아름다움에 주목할 수 있게 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가요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현대시 수업에 활용 가능한 시어로 된 가사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시의 언어는 통상적으로 시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일상어이면서도 일상어 속에 용해될 수 없는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와 독자성을 가진 언어이다. 때로는 알기 쉬운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다의적이며 암시적·상징적인 의미의 뜻을 지닌 가사를 사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그들의 감각적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게 좋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고차원적인 것보다는 학습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텍스트여야 한다. 그들의 사회, 문화적 수준이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해야 할 것이다.

작품 선정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따분하고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의 것으로 학생들 중에 가요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지목하여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좋다. 몇몇 학생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선택한 것 중에서 현대시 수업에 활용하기 좋은 가사 내용이나 멜로디를 가진 작품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IV. 수업의 실제

이와 같이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시적 요소인 비유나 상징 이미지를 담고 있는 가요를 도입해 어떤 수업이 가능한지, 이 장에서는 가상수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수업할 대상의 가요에 관해 소개한다.

수업에 활용할 대중가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世界に一つだけの花)

世界に一つだけの花 - SMAP

花屋の店先に並んだ いろんな花を見ていた
ひとそれぞれ好みはあるけど どれもみんなきれいだね
この中で誰が一番だなんて 争うこともしないで
バケツの中誇らしげに しゃんと胸を張っている

それなのに僕ら人間は どうしてこうも比べたがる?
一人一人違うのにその中で 一番になりたがる
そうさ 僕らは 世界に一つだけの花
一人一人違う種を持つ
その花をさかせることだけに
一生懸命になればいい

困ったように笑いながら ずっと迷ってる人がいる
頑張ってた花はどれも きれいだから仕方ないね

やっと店から出てきた その人が抱えていた
色とりどりの花束と うれしそうな横顔
名前も知らなかったけれど あの日僕に笑顔くれた

誰も気づかないような場所で さいてた花のように
そうさ 僕らも 世界に一つだけの花
一人一人違う種を持つ
その花をさかせることだけに
一生懸命になればいい

小さい花や大きな花 一つとして同じものはないから
NO.1にならなくてもいい もともと特別なOnly one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 - SMAP -

꽃집 가게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꽃을 보고 있었다
사람들 각자 취향은 다르지만, 어느 것이나 모두 아름답다
이 중에 누가 제일이라고 다투는 일도 없이
바케츠 속에서 자랑스러운 듯이 쪽 가슴을 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들 인간은 왜 이렇게도 비교하고 싶어 할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른데, 그중에서 일등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 우리들은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
하나하나 다른 종자를 가진
그 꽃을 피우는 일에만
열중하면 된다

곤란한 듯이 웃으면서 계속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
운힘을 다해 피어 있는 꽃은 어느 것이나 모두 아름다워 어쩔 수 없다.

겨우 가게에서 나온 그 사람이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색의 꽃다발과 기쁜 듯한 옆모습
이름도 모르지만 그 날 내게 웃음진 얼굴을 선사해 주었다
아무도 알지 못한 장소에 피어 있는 꽃처럼

그래, 우리들은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
하나하나 다른 종자를 가진
그 꽃을 피우는 일에만
열중하면 된다
작은 꽃이랑 큰 꽃,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은 없으니까
일등이 아니어도 좋다. 원래부터 특별한 단 하나의 존재

우선 이 작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http://ja.wikipedia.org/wiki/>에 의하면 「世界に一つだけの花」는 SMAP의 대표곡 중의 하나이다. 작사·작곡은 槇原敬之가 한 것으로 원래는 SMAP의 앨범 CD 《SMAP015/Drink! SMAP!》(2002년 7번째) 수록곡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발표 당시 SMAP 멤버는 이 노래가 동 앨범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코멘트하였으며, 이 사실은 SMAP

팬들에게는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5)

이 곡이 알려지게 된 것은 SMAP의 멤버 구사나기 쓰요시(草なぎ剛)가 주연한 텔레비전 드라마 『僕の生きる道』(関西テレビ放送製作, 2003년 1월~3월 방송)의 주제곡이 된 것이다. 드라마 방송 직후로부터 싱글 앨범으로 하지는 요청이 많아, 멤버의 가창 파트를 조금 교체한 후 2003년 3월 5일 현재 우리들에게 선보여주고 있는 「世界に一つだけの花」로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 노래는 2년여에 걸쳐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킨다.

더불어 2005년 JASRAC 금상(金賞)을 수상한 작품이었던 것도 설명한다. JASRAC상은 저작 사용료의 분배액에 의해 결정, 관계권리자에 대해 그 공적을 기리고, 또한 음악 저작권 보호, 음악 이용에 공헌했다는 의미로 표창하는 상이다.

<http://www.jasrac.or.jp/profile/prize/>에 의하면 이 노래는 당해년 4월 ~ 익년 3월까지의 1년간의 분배액을 대상으로 상을 결정한다고 한다.6)

[제1단계]

* 의미단위로 끊어서 읽어보게 한다.

花屋の/ 店先に 並んだ/いろんな/花を/見ていた/

* 단어와 어휘, 문법을 설명한다.

· 명사는 명사대로 모아 의미를 설명한다.

店先: 가게 앞, それぞれ: 각각, 花束: 꽃다발, 笑顔: 웃는 얼굴

· 동사나 형용사는 활용에 유의하며 기본형을 알고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争う: 다투다, 比べる: 비교하다, 迷う: 헤매다, 抱える: 껴안다, 頑張る: 분발하다 힘내다

誇らしげに: 誇らしい+げに의 꼴로 「~げに ~」의 의미가 있어 「자랑스러운 듯이」의 의미가 됨을 설명한다.

うれしそうな:うれしい의 어간+そうな의 구조를 취한 어구로 「기쁜 듯한」의 뜻으로 해석됨. 比べたがる: 比べる의 어간+たい의 어간+がる로 분석 가능하며 「비교하고 싶어한다」는 뜻으로 해석됨을 설명한다.

仕方ない:しかた+ない의 합성어로 「방법이 없다, 즉 어찌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 번역을 하게 한 다음, 발표하여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 문맥상 뜻이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곳은 없는지 다시 확인한다.

5) <http://ja.wikipedia.org/wiki/> 2006. 7. 5

6) <http://www.jasrac.or.jp/profile/prize/> 2007. 1. 14

[제2단계]

* 노래를 들려준다.

최신기자재를 사용하여 음악을 들려준다. 노래 혹은 대중가요는 실제적으로 음악으로 들어야만 ‘음악성’ ‘운율’을 찾아낼 수 있다.

- 발음이 어려운 곳이나 리듬이 빨라 따라 부르기 어려운 곳을 체크하여 여러 번 반복하게 한다.
- 다시 노래 듣고 2~3회 반복하게 한다.

[제3단계]

* 가사에서 운율을 살려주는 표현을 찾아보게 한다.

운율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을 알아보게 한다.

시에서는 운율로 나타나는 부분이 노래에서는 반복되는 멜로디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어떤 멜로디의 노래인지 생각해 보게 하고 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토론하게 한다. 이 노래는 그런 점에서 서정적이고 경쾌하며 노랫말과 멜로디가 잘 어우러져 있음을 알게 한다.

*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함축성이나 상징성을 보여주는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게 한다. 이 부분에서는 비유와 상징적 표현을 이해하는 일은 시의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는 열쇠임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비유나 상징의 원리와 효용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이를 일상의 언어생활에까지 활용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 1절 가사의 표현이 거의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色とりどりの花(각양각색의 꽃) → 각각의 개성을 지닌 사람들

種(종자) → 인간의 잠재능력

世界に一つだけの花(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 →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世界に一つだけの花>로 표현

一人一人違う種を持つ(하나 하나 다른 종자를 가진) → 한사람 한사람 다른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비유하고 있음.

* 어떤 형식을 취한 가사인지 이야기해 보게 한다.

작사가들은 작사를 할 때 스토리형·독백형·편지형·과거형·대화형 등, 여러 가지 형식을 놓고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이 노래는 어떤 형인지 이야기해 보게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작사가란 직업에 흥미를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제목은 무슨 뜻인지?

노랫말을 보면 그 자체에는 특이할만한 개성은 엿보이지 않는다.

편안하게 스토리를 이끌고 있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특히 제목이 갖고 있는 <世界に一つだけの花>라는 의미가 함축적인 표현임을 알게 한다.

* 이 노래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위의 가사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여태까지 불려온 관행적 사랑타령과는 무관한 노래이다. 그런 노래이면서 인기차트 1위에 올랐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사랑 노래에서 배어 나오는 태도와는 달리 창작자들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객관화되고 자각된 인식·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창작자 스스로 이를 자신의 중요한 사유의 과제로 삼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다각적이고 풍부하게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 노래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경쟁에서 일등이 되기보다는 각자가 가진 개성이 중요하다’고 노래한데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 인터넷 기사를 참고로 하면 가사 내용이 오래 이어지는 불황에 따른 폐색감(閉塞感), 경쟁사회에 대한 피로감이나 무력감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어떤 위안을 주어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음반업계 전체의 CD세일즈가 불황을 겪는 속에서 위와 같은 더블 밀리언셀러는 「桜坂」(2000년) 이래 3년만의 쾌거라고 하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 공감을 하고 위안을 얻었는지 알만 하다.

또한 이곳은 反戰 이미지도 시사하고 있다. 꽃과 인간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평화의 소중함을 호소한다고 CD 발매 때의 SMAP멤버는 코멘트하고 있다. 실제로 이 노래가 드라마 방송으로부터 싱글발매가 확정되었을 무렵, 당시 세계정세는 이라크 전쟁 폭발 직전으로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전(開戰) 회피를 호소하는 메시지로서도 반향을 불러일으켜 인기에도 더욱 박차를 가했다고 한다. 2003년 세밀의 고히쿠우타갓센(紅白歌合戦)에서 오토리(大取り曲)으로 선정되었는데, 시청률이 높은 이 시각에 되풀이한 반전 코멘트는 이 프로 최고의 하이라이트라 여겨지는 오토리(大取り)의 가창 전이었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호소한다고 하는 이 같은 메시지는 더욱더 이례적인 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 노래가 모두의 찬탄을 받고 있는 건 아니다. 「ナンバーワンにならなくてもいい」는 향상심(向上心)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수업 중에도 이 같은 반론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임을 강조할 뿐이라고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 일본 대중가요 가사를 중심으로 노랫말의 소재에 관해서도 토론해 보게 한다.

노랫말의 소재는 어디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텔레비전·영화·신문기사·길가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 그저 무덤덤하게 스치며 살아가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노랫말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숨겨진 잔잔한 감동을

찾아낼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봄날 새싹이 돋는 모습, 가을날 맑은 하늘, 부모님 사랑, 사회정의를 위해 뛰는 사람들의 모습 등 연인의 사랑과 이별에만 집착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실례로 들어 인간에 대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얼마든지 충분히 시의 좋은 제재로서의 가요가 많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아가 시의 소재는 주변을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타성에 젖은 일상, 고정관념, 돈과 사회적 지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세속화된 인간관계와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살벌한 세상, 군중 속의 외로움과 서로에 대한 무관심, 도시의 비인간화된 삶과 오염된 환경, 세대 간의 갈등과 자신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의 고민, 따뜻한 인간관계에 대한 바람, 자아상실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노랫말이 있음을 알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각도에서 검토하면 대중가요를 통해서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시적 언어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가요의 작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V. 나오며

대중가요는 일본인들의 삶과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살펴온 바와 같이 대중가요는 현대시로서 충분히 감상할만한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들이 많다. 그것들을 통해 학생들과의 교감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世界に一つだけの花—SMAP>의 노래의 경우,

넘버원이 아니어도 좋다 (ナンバーワンにならなくてもいい)

원래부터 특별한 단 하나의 존재(もとも特別なオンリーワン)

라는 전달메시지가 강한 노래였기 때문에 가사가 가지는 힘은 단순한 흥미제공의 차원을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현 면에서도 시어가 요구하는 함축성이나 상징적인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고 시에서 나타나는 운율은 반복적인 멜로디를 사용해 시의 특징적인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중가요를 현대시의 부교재로 사용해 일본인이나 일본인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습과 정서에 관해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강의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시 수업을 위한 소재가 시집 속에 수록된 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는 오로지 시집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광고나 아이들 게임 속에도 있고 재담 속에도 대중가요 속에도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이러한 서브컬처

속의 시적 표현들이 강의하는 우리로 하여금 시를 훨씬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다.⁷⁾ 그리고 이러한 수업을 통해 시가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 이상으로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参考文献】

강준만(1999), 『대중문화의 길과 속』, 인물과 사상사
박애경(2000),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세상
장유정 지음(2006), 『오빠는 풍각쟁이야』, 민음in
김성환역·대진대 철학과 학생들과 함께 지음(2001), 『대중음악 속의 철학』, 天池

町田守弘(2001), 『国語教育の戦略』, 東洋館出版社

<http://ja.wikipedia.org/wiki/>(2005)

<http://medianaramal.njoyschool.net/>(2005)

<http://www.jasrac.or.jp/profile/prize/>(2007)

7) 日本에서도 町田守弘의 『國語教育の戦略』(東洋館出版社, 2001)을 참조하면 서브컬처를 이용한 국어수업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要 旨

本稿では、現代人の欲望や思考方式等をよく表わしている日本大衆歌謡をはたして日本現代詩の中に取り入れて授業ができるのか、もしそれが可能であったら、どんな歌謡を選別してどんなやり方で授業をやっていけばいいのかに関して考察してみた。

まず、大衆歌謡は感性の過剰露出・型に嵌まった決まり文句の使いすぎ・商業主義など関係づけられ否定的に評価されてきた。だが、大衆歌謡はテキストにした際、短い文章で意味把握がしやすいし、聞き取りが難しくなくて学生の興味や関心がひける。さらに現代の歌謡は多様なレベルの内容の歌があるので意図することにより選曲できるという長所も有している。したがって、意図する点及び学習者の興味や関心などを考慮して選別すれば日本人の生活と情緒を理解できる現代詩の副教材としても十分に鑑賞できる歌が選べられるといえよう。

次に、教材化に適する歌謡については、人間の生き方及びそれに関わる物事や世界を理解し、意思疏通の能力を開発するのに役に立つべき内容の歌で、暗示的・象徴的特徴のある詩的表現が用いられている歌詞を持っている歌、当時点で学習者が関心を持っていて楽しんでいる歌であれば良いということについても考えてみた。

仮定の授業のために、Smapの「世界に一つだけの花」を選んで実際の授業を試みたのですが、この歌は強いメッセージを持っていて普通の歌謡の歌詞が持っている興味提供のレベルを越えていた。表現面でも詩語が求めている含蓄性や象徴性に富んでいる比喩を駆使しており、詩歌の特徴である韻律は繰り返して使っているメロディから十分説明できうる特徴を有している。

以上のような考察の結果、大衆歌謡は現代詩のテキストとして十分活用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た。私たちの周りをよく見るとこれ以外にも広告文や標語などにも現代詩のテキストは探し出すことができるし、他のサブカルチャの中でも訴える力のある詩的な表現を探することができる。本稿の中では扱っていないが、今後の課題にして、こういう材料を取り入れて現代詩の授業の領域を広げてより楽しい授業を試みたいのである。

キーワード：日本人の生活・情緒・大衆歌謡・日本現代詩・授業の戦略

투 고 : 2008. 11. 30

1차 심사 : 2008. 12. 13

2차 심사 : 2008. 12. 27